



2018년 2월9일 개막

80개국 5000명 참가 15개 종목 100개 금메달
총생산액 유발효과 21조원... 고용창출 23만명

이제는 평창이다. 성적과는 관계없이 스포츠팬들에게 환희와 안타까움, 아쉬움을 전한 소치동계올림픽이 24일 막을 내리면서,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차기 개최지인 대한민국 평창으로 쏠리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소치 피시트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회를 인수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평창조직위원회는 폐막식에서 대회기 인수 문화공연을 펼쳤다. '동행(A Journey Together)'을 주제로 본공연은 '평창의 깨어남', '함께 꾸는 평창의 꿈', '새로운 지평으로의 동행' 등 총 3막으로 구성됐다. 본공연에서 성악가 조수미, 재즈가수 나운선, 가수 이승철 등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리랑 메들리'를 노래했다. 평창과 강릉 출신의 어린이들의 애국가 제창도 이어졌다.

평창은 이미 올림픽 준비로 분주하다. 올림픽 주무대인 평창 알펜시아에는 155m 높이 스키점프대가 들어섰다. 근처에는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경기장도 마련됐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기장 13개 중 7개는 이미 완공됐거나 기존 경기장을 활용한다. 나머지 6개는 2016년 말 완공이 목표다. 평창 대회는 2018년 2월 9일 개막해 25일까지 17일간 열전을 벌인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하계 대회였던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열게 됐다. 평창 올림픽에는 80여 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약 6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약 10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대회가 열리는 도시는 평창과 강릉, 정선이다.

설상 경기는 평창과 정선에서 열린다. 크로스컨트리와 스키점프, 노르딕복합,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키레톤, 루지, 알파인스키 대회전과 회전, 프리스타일스키, 스노보드가 평창에서 진행된다. 알파인스키 활강과 슈퍼대회전은 정선을 주무대로 삼는다. 빙상종목인 스피드와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컬링은 강릉에서 열릴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총생산액 유발 효과를 약 20조5000억원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 효과도 2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3월9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다. 이 대회에도 50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1500여 명이 참가해 '아름다운 도전'을 계속하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감동의 '여왕'

김연아 홈 텃세에 '銀'... "미련 없고 홀가분"



비록 관객 논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마지막 무대는 자신의 별명답게 우아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은 세계 피겨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감동을 선사한 '여왕'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는 대회였다. 김연아는 2006년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이래 한국을 넘어 세계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선수가. 시니어 시절을 통틀어 한번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대회가 없었고, 여자 싱글 최초로 종합 200점을 넘기는 등 숏한 기록을 남겼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작성한 228.56점은 피겨 네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도 깨지지 않고 여자 피겨의 최고점으로 남아 있다. 올림픽 무대에서 다시 그의 연기를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많은 이들이 설렌 순간이었다. 많은 이들은 카타리나 비트(독일) 이후 26년 만의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2연패가 탄생하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소치올림픽에서 김연아가 보여준 무대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4년 뒤, 기대된다

'3년 연속 톱10' 달성에 실패한 한국 대표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훌륭한 기대주들을 데려 올랐다는 점에서 큰 수확을 거뒀다. 저조한 성적표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확실한 희망을 발견했다. 대표 주자는 여자 쇼트트랙의 심석희(17·세화여고)다. 3000m 계주 결승에서 팀의 에이스로 마지막 레이스를 책임지며 역전 드라마를 쓴 그는 전 세계 팬들은 물론 경쟁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금(3000m 계주)·은(1500m)·동(1000m)을 하나씩 목에 걸었다. 그러나 1500m 결승에서는 중국의 저우양에게 다잡은 금메달을 내주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향후 10년 이상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전성기를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심석희와 함께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함축한 김아람(19·전주제일고)과 공상정(18·유봉여고) 등 무서운 10대들의 질주는 평창에서 절정을 오를 전망이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뒤를 이을 나주 소년

박소연(17·신목고)과 김해진(17·과천고)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평창의 또 다른 재미다.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이들은 쇼트프로그램에서 24위에 들어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하는 등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스켈레톤의 윤성민(20·한국체대)은 선수 경력 1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썰매 종목 역사상 최고 성적인 16위를 기록하며 홈그라운드인 평창에서의 성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쇼트트랙 금·은·동 휩쓴 여고생 심석희
스켈레톤 1년만에 올림픽 16위 윤성민
여자컬링, 세계 위협... 기대주 대거 발굴



안현수 '화려한 부활'

500m·1500m·계주 금... 첫 두대회 3관왕
동계올림픽 8개 메달... 러시아의 영웅으로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의 최고 스타는 단연 안현수(29·러시아령 빅토르 안)였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는 러시아 유니폼을 입고 8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누벼 홀로 3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의 부활은 한국 남자 대표팀의 부진과 대비돼 더욱 빛났다. 남자부 첫 경기인 1500m에 출전한 신다운(서울시청)이 준결승에서 미끄러진 데 이어 이한빈(성남시청)이 홀로 결승 진출했지만 6위에 그쳤다. 남자 계주 준결승에서 이호석(고양시청)이

넘어지면서 탈락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어 남자 1000m 결승에서 신다운이 반칙 판정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남자 500m까지 박세영(단국대)과 이한빈(성남시청)이 준결승에서 탈락, 12년 만에 '노메달'의 수모를 겪었다. 반면,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선 안현수는 남자 10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부활을 알렸다. 그는 500m와 5000m 계주까지 우승을 차지했다.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 대회에 이어 사상 최초로 두 대회 3관왕에 오르는 대기록을 남

겼고, 역대 올림픽 쇼트트랙 최다 메달 기록(8개)과도 타이틀을 이루며 러시아의 영웅으로 우뚝 섰다. 안현수의 부활은 한국 쇼트트랙의 자성을 요구하는 촉매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 등 정치권에서 안현수의 귀화 과정 등을 문제삼기 시작하고, 안현수가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회 한국 쇼트트랙이 따낸 메달 5개(금2·은1·동2)는 모두 여자 선수들의 작품이다. 4년 뒤 안방에서 열릴 평창 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 강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남자 대표팀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선수 육성과 관리에 힘쓰는 것이 숙제로 떠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피겨여왕' 김연아가 23일 오전(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갈라쇼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